

2023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중동부유럽 권역



튀르키예 내 쿠르드인들 속에서

송현우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국가의 이름으로만 보면 이 나라의 민족은 오직 튀르크인들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튀르키예는 다민족 국가이다. 같은 튀르크인 내에서도 초대 대통령 아타튀르크처럼 금발에 파란 눈의 튀르크인부터 흑인계 튀르크인까지 다양한 생김새의 튀르크인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라즈인, 체르케스인, 타타르인, 아랍인, 조지아인, 아르메니아인, 그리스인, 발칸반도 출신 무슬림들, 아시리아인, 자자인 그리고 쿠르드인 등으로 민족지표 또한 나누어진다.

초대 대통령 아타튀르크는 이 모든 다양성을 ‘튀르크인(Türk)’이라는 정체성 아래에 한데 묶어 근대 민족주의 국가를 건설했으나, 이는 현재까지 튀르키예 내 정치·이념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중 가장 큰 민족적 분쟁은 당연히 쿠르드인 문제이다. 중동 내 가장 큰 소수민족이자 고대부터 중동에 있었던 원주 민족인 이들에게는 나라가 없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주권국의 지위를 획득 하고 싶었던 이들은 무장단체를 조직하여 독립투쟁을 이어갔으나, 이라크의 북부에서 자치주를 설립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디아르바크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무장 중장갑 경찰차이다. 현지인들은 전갈이라는 뜻의 아크렙(Akrep)이라는 별칭으로 불렀다. 튀르키예 정부가 이 지역을 향해 느끼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인 쿠르드족은 당연히도 튀르크인들과는 차별적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튀르키예에서 유학생활동을 하는 나는 늘 쿠르드인들에 대해 궁금해 했다. 우리 나라의 뉴스 미디어에서 튀르키예 내 쿠르드인들은 절대적인 독립을 원하는 억압받는 민족으로 흔히 묘사되는데, 실제로 쿠르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궁금했다.

"우리 쿠르드인들은 튀르크인들보다 백배는 손님대접을 더 잘 해." 라고 쿠르드인 친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게 기억난다. 손님 대접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튀르크인들보다 백배는 더 잘 한다니, 처음에는 믿기가 어려웠다. 여러가지 호기심과 기대를 안고 튀르키예 내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 내가 여행하기로 결심한 곳은 디야르바크르(Diyarbakır)였다.

내가 여행을 한 때에는 해당지역에 무력 분쟁이 끝난 상태였고 정부의 강력한 평화 유지 병력이 자리잡은 상태여서 여행하기에는 안전했으나, 그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튀르크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자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말을 당부해서 사실 어느 정도 긴장을 했다.

도시에 들어선 이후 웅장한 중세시대 성벽 안에 검은 돌로 지어진 옛 건물들 사이로 들려오는 조금 서툰 발음으로 들리는 튀르키예어 그리고 쿠르드어는 내가 드디어 쿠르드인의 땅에 들어섰다는 느낌을



디야르바크르 성벽

을 가지게 해주었다. 기독교 선교사들 외에는 동양인 관광객이 그리 많이 여행하지는 않는 곳이라 현지인들이 나를 아주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이들 중 일부는 나에게 차를 대접하며 디야르바크르에 온 걸 환영한다는 말로 나를 손님으로서 환대했다. 또한 많은 버스 기사들이 승차요금을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종종 식당에서 식사비도 받지 않는 등 이들의 손님 대접문화는 엄청났다.

튀르크인들의 우려만큼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분쟁이 있었던 시절에 생긴 건물 벽들의 총알 자국들만이 예전의 긴장감을 보여줄 뿐이었다.

쿠르드인들의 환대문화가 또 늘 좋기만은 한 건 아니었는데, 한번은 친구로서 알고 지내던 디야르바크르의 쿠르드인 여성 친구가 본인 가족의 집의 아침식사에 나를 초대했다.

일반적으로 튀르키예에서 아침식사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남녀 상관없이 매우 열한 관계 속에서 일종의 친밀함의 표현이다. 더군다나 외국인인 나를 아침식사에 초대했다 함은 보통 먼 이국에서 온 손님을 진심으로 환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쿠르드인들에게 이걸 약간 예민한 문제였던 모양이다. 보통 부족이나 친척들이 한 마을이나 구역에 모여서 사는 쿠르드인들의 문화 탓에, 내 친구와 그녀의 가족은 남자인 내가 장시간 집 밖의 골목에 노출되어 골치 아픈 가십거리가 되는 걸 꺼려했

다. 튀르크인들의 문화와는 다른 그들의 보수적인 문화를 설명하며 나에게 양해를 구한 후 남들의 눈에 띄기 전에 가능한한 빠르게 나를 집으로 들이려고 하였다.

집에 도착 후 튀르키예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쿠르드어만 할 줄 아는 가족들로부터 환대를 받았지만, 내심 남자로서 홀로 집안에 발을 들인 나를 크게 달갑게 대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확실히 내가 이전에 여행했던 튀르크인들이 사는 지역들과는 분위기가 매우 달랐다. 손님으로 갔지만 나도 눈치는 있는지라 간단히 아침식사를 마치고 튀르키예에서 손님으로서 예의를 지키며 감사를 표하는 행위인 홍차를 한 잔 마신 후 초대받은 집을 나섰다.

당일 저녁에 디야르바크르에서 새로 사귄 지역 신문기자로 일하는 쿠르드인 친구들에게 내가 겪은 일화를 들려주니 미소를 띄며 위의 사례 외에도 쿠르드 문화와 튀르크 문화의 차이점들을 많이 들려주었다. 결혼식에서 다양한 전통 춤과 왈츠를 추기도 하는 서부의 튀르크인들과는 달리 동부의 쿠르드인들은 오직 할라이(Halay)라고 불리는, 모든 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발을 굴리며 춤을 추는 쿠르드 전통 무용을 춘다는 점, 아침식사마다 다양한 채소와 치즈를 먹는 튀르크인들과는 달리 아침식사부터 소 간을 구워 먹는 쿠르드인의 색다른 식문화, 아직까지 부족 생활을 이어가는 동부의 쿠르드인들의 공동체 문화 그리고 튀르트인들의 그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그들의 의복과 언어까지. 내가 본 쿠르드인들은 확실히 튀르크인의 문화와 그



기자인 친구가 활동하는 쿠르드어로 출간되는 지역신문

들의 문화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면 쿠르드인들은 튀르키예로부터 독립을 원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것에는 조금 색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우선 튀르키예의 튀르크 민족주의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1923년 튀르키예 공화국이 건국될 때 건국 이념으로 주창된, 현대 튀르키예의 정치 및 사회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튀르크 민족주의는 예상외로 인종적 민족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마치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개념처럼 "튀르키예 영토 안에서

살며 튀르크어를 구사하고 스스로 튀르크인이라고 여기는 자"를 튀르크 민족이라고 여기는 것이 튀르크 민족주의라서 쿠르드인처럼 인종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른 민족이라도 스스로 튀르키예의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그 사람은 튀르크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흔히 이 사상에 우호적인 쿠르드인들은 스스로 "나는 쿠르드인이면서 튀르크인이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튀르키예의 질서에 우호적인 편이다. 내 한 쿠르드인 친구에 의하면, 학창시절 어느 튀르키예 군인이 전사하여 그를 추모하는 전단지를 받은 쿠르드인 학생이 전단지를 찢어버리자 내 친구는 "이분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게 해주었던 고마운 분이다."라며 그 친구를 꾸짖었다고 한다.

실제로 튀르키예 내에서 활동하는 쿠르드 무장단체인 PKK는 우리역사의 독립군과는 달리 쿠르드인 마을들에 약탈과 강간을 일삼아 같은 쿠르드 민족들로부터 많은 지지자들을 잃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들 마을의 치안을 유지시켜주는 튀르키예 군인들은 비단 튀르크 민족주의에 우호적인 쿠르드인들 뿐만 아니라 정치나 사상에는 관심이 없는 쿠르드인들에게까지도 우호적인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물론 여전히 무장투쟁만이 쿠르디스탄의 독립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튀르크인의 질서를 싫어하고 해당 단체를 전폭 지지하는 쿠르드인들도 많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이와는 반대 의견을 가진 쿠르드인들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내가 보고 느낀 것이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쿠르드인들이 사는 지역을 여행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것은, 한국 언론을 통해 한국인의 시선에서만 쿠르드 문제를 바라보면 쿠르드인들의 무장 독립 투쟁이 정의로워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현지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스스로의 문화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쿠르드 무장단체를 지지하지 않는 쿠르드인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논제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어느 편이 선이고 어느 편이 악인지 구별하는 것 또한 흔히 중동의 국제 관계가 그러하듯 난해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최대한 많은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디아르바크르 시민들이 아침마다 즐겨먹는 소 간 요리 지게르(Ciger)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

